

농생명·식품산업의 가치창출을 통한 삼락(三樂)농정 구현에
(재)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진흥원 주요기능 및 역할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 허용

발효식품엑스포 후속 지원사업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사업화 성공모델 발굴

수도권 판로개척 활동 성료

입주기업육성 성공사례

(주)디자인농부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새얼굴 만나기

2019년도 식품분석지원 안내



【 식품·생물자원의 고부가가치화로 미래가치창출 】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은

지역소재 대학,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농생명·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주요기능 및 역할



기획경영

- 농생명·식품 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기획
- 기관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및 성과 관리
- 농생명 혁신기관 산학연 네트워크 협력 강화



엑스포 개최

-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 전북 농식품 B2B 상담 및 수출 활성화 지원
- 국내외 유망기업 발굴 및 네트워크 협력



창업·인력양성

-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 농생명 특화 창업보육 시스템 운영 및 활성화
- 기업 맞춤형 현장 교육 및 우수 인재 양성



R&D지원

- 농생명·식품분야 대형 R&D 사업 기획 및 유치
- 지역 특화 소재를 활용한 고부가 R&D 지원
- 우수 연구성과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



기업지원

- 국내외 바이어 연계 시장 개척 및 공동프로모션 지원
- 농식품기업 성장단계 맞춤형 기술 사업화 지원
- 농식품 유망기업 발굴 및 선도 기업 육성



생산·분석 지원

- 건강기능식품(GMP) 제형화 연구 및 생산 지원
- 자가품질 검사 및 영양성분 등 품질분석
- 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 개발 등 상품 경쟁력 강화

CONTENTS

04

특집

식품 기능성 표시제 도입에 따른
전북 식품 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06

① 발효식품엑스포 후속 지원사업

판로개척 프로모션, 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지역 식품기업 성장에 톡톡히 기여

08

②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사업화 성공모델 발굴

기술거래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 입증
식품농생명기술은행 시스템 구축 완료

10

③ 수도권 판로개척 활동 성료

서울국제소싱페어 및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성과

12

④ 입주기업육성 성공사례

입주기업에 다양한 창업사업화 및착지원

13

(주)디자인농부

입주기업의 성장 가능성 널리 알려

14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새얼굴 만나기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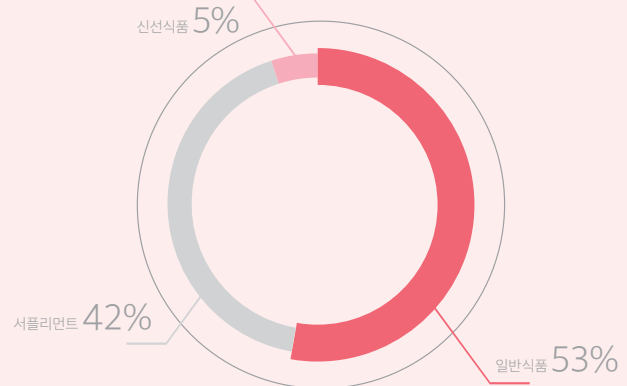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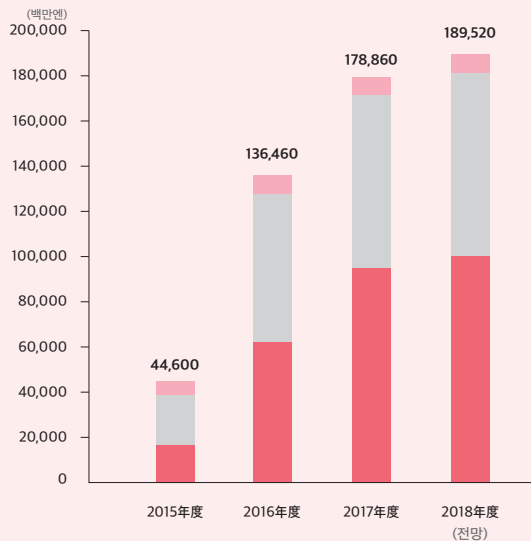
2019년도 식품분석지원 안내

(식품분석 수수료)

식품 기능성 표시제 도입에 따른 전북 식품 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일본 도입사례

기능성 표시 식품제도란, 국가가 아닌 사업자가 식품의 기능을 입증하면 건강효과를 제품 전면에 표기할 수 있는 제도로써 일본은 2015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시장조사기관 야노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기능성 표시 식품시장은 2015년 446억 엔에서 제도 시행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16년에는 1,364억 엔으로 3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2017년 1,788억 엔(전년도 대비 31.1% 증가), 2018년도는 1,895억 엔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7년도 시장규모
1,788억 6,000만엔

일본 야노경제연구소, 건강식품 시장에 관한 조사결과(2019)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식품표시제가 도입된 후 일본은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채소, 과일 등 신선농산물까지 혈당 상승 억제, 내장 지방 감소 등 기능성을 앞세운 상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기능성표시 제품사례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내세운 초콜릿



완만한 당 흡수 기능을 표시한 센베



혈압 저하 기능을 표시한 야채주스



내장지방 감소 효과를 강조한 요구르트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도입에 따른 전북 농생명·식품 기업 대응전략 세미나(2019.06.24)

우리나라도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5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을 일반식품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을 일반식품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협의됨에 따라 전북의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24일 (월) 전주 그랜드 힐스톤 호텔에서 전라북도와 농촌진흥청이 주최하고,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식품 기능성 표시제 도입에 따른 전북 식품 기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전라북도 농생명·식품산업 관련 연구기관, 대학, 지자체 연구소 전문가 및 기업 CEO 등 많은 분들이 참석 하였으며, 전라북도 내 식품산업을 진흥하게 하고 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가 더욱 좋은 방향으로 발전 될 수 있도록 돕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식품 기능성 표시제 도입의 필요성 (농림축산식품부 김성만 사무관)』, 『식품 기능성 표시제 도입에 따른 대응 방안 (한국식품연구원 하태열 박사)』, 『식품 기능성표시제 해외사례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철수 박사)』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이어 (사)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신동화 회장 주재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유강열 원장, 전주대학교 이정상 교수, 아미코젠(주) 신대근 연구 소장 등 산·학·연·관 전문패널들과 함께 도내 농식품 기업들이 식품 기능성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 등을 참석자와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민선 7기 역점프로 추진하는 농생명·식품 산업 육성의 성과가 다양한 분야에서 도출되는 가운데 이번 기능성 표시제 도입이 도내 식품업계의 성장 기회로 작용되어 명실상부한 농생명 수도, 식품산업 메카로 전라북도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라북도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 및 지자체 연구기관을 활용한 과학적 검증체계를 바탕으로 일반식품이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한 '안전'과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면 도내 식품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전북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발효식품엑스포 사후관리 지원사업 지역 식품기업 성장에 톡톡히 기여



전라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발효식품엑스포 참여기업의 연중 마케팅 지원을 위해 엑스포 참여기업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식품기업들의 매출 신장과 지속 성장을 위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이끌어 지역 식품기업의 매출 성장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

2016년 12월에 서울 행복한 백화점을 시작으로, 2017년 7월과 2018년 1월에 분당 AK백화점, 2018년 3월에는 수원 AK백화점에서 총 4차례의 전북 우수 발효식품 수도권 특별 프로모션을 시행하여 약 8천 5백여 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무주 '남영제약'이 행복한 백화점에, 전주 '이고장식품'이 AK백화점에 정식 입점하게 되었으며, 프로모션에 참여한 다른 기업들도 수도권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통해 프로모션 종료 이후에도 택배 주문이 늘어나는 등 높은 재구매율과 파급력을 선보였다.



디자인 개발 지원



수도권 프로모션 지원

또한 2018년 설날과 추석, 2019년 설날을 겨냥해 인터파크, G마켓, 옥션 등 대형 오픈마켓과 우체국 쇼핑몰을 우체국 쇼핑몰을 활용한 전라북도 우수상품 기획전을 구축하고 배너광고, 할인쿠폰 지원 등 총 4차례의 온라인 프로모션을 추진하여 약 7억 1천여만 원의 매출을 이루고 기업의 지속성장과 순환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였다.

우체국 쇼핑몰 프로모션에 참여한 전주‘프로티젠’의 강성우 대표는 “어떠한 전시회도 참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없는데, 연중으로 다양한 지원을 해주니 너무 감사하다. 이번 프로모션으로 평소 대비 약 3배 이상 매출이 늘어서 매우 기쁘고, 신규 고객들도 많이 확보했다. 앞으로 판로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고, 올해 엑스포도 매우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창업 5년 미만, 연 매출 5억 미만의 영세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에는 임실 ‘무지개 영농조합’을 비롯해 총 13개 업체에 대해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맞춤형 홍보를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군산 ‘금강식품’을 비롯해 총 7개 업체에 대해 디자인 개발 지원을 완료하여 영세한 도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한편, 2019년에도 엑스포 도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 17회째를 맞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식품·농생명분야 기술거래전문기관 역량 입증



기술이전 협약식

2019년 1월 23일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2019년 제1차 식품·바이오 분야 기술이전 협약식'을 열고 도내 기업체인 ㈜식스펫, (유)케이에이치바이오텍, 프로티젠에 자체 개발한 사업화 유망기술 3건 이전을 완료한 바 있다.

㈜식스펫은 '메뚜기 분말 피부 가려움증 경감용 조성물 및 이를 활용한 사료 제조 방법'을, (유)케이에이치바이오텍은 '음식물쓰레기 분해용 혼합균주 활성화 및 현장 적용 방법', 프로티젠은 '장내 세균총에 유익한 효능을 가진 조성물 및 이를 활용한 영유아 식품 제조 방법'에 대한 기술을 이전 받았다. 이번 기술이전 협약식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의 연구개발 능력과 기술사업화에 대한 꾸준한 노력으로 얻어진 이루어진 성과이며, 기술거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며 식품·바이오 분야의 도내·외 기업의 발전을 위해 기술가치 평가, 기술중개·이전 및 사후관리까지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농생명기술은행(FBIP) 시스템 구축 완료



식품농생명기술은행 www.ipfoodbio.com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술거래기관(제2017-21-14호)으로 지정받아 2017년도부터 식품·바이오 분야의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 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전과 중개 활성화를 위하여 의뢰자와 구매자 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기술거래기관 플랫폼 운영 시스템(www.ipfoodbio.com, FBIP)을 구축하였다. 본 플랫폼 시스템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식품농생명기술은행, FBIP)과 연동하여 자체 사업화 유망기술 리스트, 기술거래 조회, 기술거래 신청, 기술가치 평가 및 보유기술 등록 등 활발한 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최근 5년간 총 30건의 기술을 도내 기업에게 이전·중개하며 도내 농생명·식품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기술거래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모바일 어플 화면

2019 서울국제소싱페어, 전북 농식품기업 수도권 판로개척에 새바람



전라북도과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지난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9 서울국제소싱페어」에서 “엄마는 출장중, 아빠는 요리중” 컨셉을 접목한 전북 공동관을 운영하고, “기업의 비즈니스 마인드 변화” 전략으로 도내 농식품 기업 16개사의 수도권 판로개척을 도와 2억4천만 원의 계약성과와 현장매출을 올렸다.

‘2019 서울국제소싱페어’는 HMR식품, 건강제품 등 소비재 분야 우수제품 유통을 위해 국내외의 구매력 있는 소싱 전문 200여 명의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외 유통채널과 연계하는 코엑스 주최 행사로 올해로 30회를 맞이한 국내 최대 소비재 유통 전문 전시회다.

이번 행사에서 전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참가기업 단순 지원을 탈피하고, 시장 침투형 공동 전시마케팅으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참가사 사전 컨설팅, 시장지향적 감성제품 개선 테스트, 기업의 비즈니스 마인드 개선 컨설팅, 차별화 판로개척 마케팅 등 기업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 이와 같은 성과를 거뒀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이번 행사에서는 참가기업의 출시제품에도 많은 변화를 보였다. 식도락푸드 조기 견제품 ‘조기퇴근’, 지리산치럼의 생들기름 ‘엄마는 이뻐다’, 더웬은협동조합 장생도라지 액상차 ‘피로할 때 이거면 돼지’, 드림영농조합법인의 곡물 선식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등 재미있고 소비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도내 농식품기업의 제품들이 참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 현장에 내방한 국내외 바이어들과 열띤 납품상담도 진행되었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제품은 우수하나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도내 농식품기업의 기술어로 해결과 판로개척을 적극 도와 기업의 성장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며, 이번 전시회와 같이 신시장 진출을 위해 꾸준히 성과와 연결될 수 있도록 판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유망한 품목발굴과 시장개척을 통해 영세한 도내 농식품기업의 유통거점 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9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차별화전략으로 농식품기업 매출 쑥쑥

전라북도과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 지난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19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서 “엄마는 출장중, 아빠는 요리중” 컨셉을 접목한 전북 공동관을 운영하고, “고객감성 속으로” 전략으로 도내 농식품 기업 18개사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도와 5억3천만 원의 계약성과와 현장상담액 약 50억 원(208건)을 올렸다.

이번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은 국내외 유망 건강식품, 간편식품, HMR식품, 식품첨가물 등 식품 분야 우수 제품 유통을 위해 국내외 구매력 있는 바이어 및 식품 관계자 약 50,000여 명 참관하는 B2B 전문 전시회로써, 코트라 주최로 올해 37회를 맞이한 국내 최대 식품 전문 전시회다.

이번 행사에서 전라북도과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관람객 대상 현장 도시락 이벤트, 인스타그램 등 SNS연계 홍보 등의 전략을 펼쳤다. 게다가 이번 행사에서는 참가기업의 출시 제품에도 많은 변화

를 보였다. 이와 함께 재미있고 소비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도내 농식품기업의 제품들이 참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 현장에 내방한 국내의 바이어들과 열띤 납품상담도 진행됐다.

또한 국내외 백화점, 마트(롯데,현대,신세계) 등 대형 유통사에서 차별화된 전북관 부스컨셉을 활용한 특판 행사 요청문의도 많았다. 전북관을 찾아온 대형 백화점 바이어(MD)는 “기존 지역 특판행사와의 뚜렷한 차별성이 있어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 판로개척 행사에 처음 참가한 한 기업 대표는 “차별화된 테마형 전북 공동관과 사전 제품 컨설팅을 통해 고객 니즈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향후 제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며, 세프복장과 적극적으로 세일즈 하는 참가사들의 비즈니스 마인드 변화가 놀랍다”며 “추후 이런 차별화된 판로개척 행사가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임주기업에 다양한 창업사업화 밀착지원



(주)디자인농부 공로패 수여

(재)전북생물산업진흥원 '바이오플렉스 창업보육센터'는 2014년 완공 이래 창업보육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흥원의 장비, 인력, 공간, 인프라 및 창업교육 등을 제공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농식품산업 창업기업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주)디자인농부(대표 김요섬)는 바이오플렉스 창업보육센터(센터장 이은미)의 2014년 10월 개소와 함께 입주하여 약 5년간 다양한 창업사업화(제품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를 통해 지속적인 매출성장과 지역 고용 창출로 전라북도 식품산업의 발전과 농식품산업 START-UP 모델로 많은 기여를 해왔다.

김요섬 대표는 농업인으로서 농업의 고부가가치창출을 위해 “농업을 디자인하다”라는 슬로건으로 농부들이 생산한 특별한 식자원을 소포장 및 가공하는 (주)디자인농부를 창업하여, 국내 우수기업체 및 소비자와 직거래를 함으로써 농부의 사업화 모델을 만들었고, 영유아 이유식 개발, 곡물을 활용한 기능성 차류 개발 등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농부는 농산물의 80% 이상을 지역 농가와 협약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기업과 농가 간 상생 협력 체계 및 친환경 생산 단지를 구축하였으며, 지역 안에서 생산, 가공된 제품을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선순환을 통해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6차산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정직함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농산품에 혁신 디자인을 접목함으로써, 신농업경제 모델을 구축하며, 코리안 푸드 명품화에 앞장서고 있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제품의 컨셉도출, 제품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및 컨설팅 등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디자인 농부는 미국, 싱가포르, 베트남, 홍콩, 일본, 호주, 중국 등 7개국 수출과 18년 약 14억원 매출, 고용 10명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또한 도지사 인증상품, 전북관광상품 100선, HIT500상품 등의 제품 인증과, 6차산업 인증, HACCP지정 등 기업 인증의 성과를 보이며, 2018년 공장을 신축하여 금년에 자립에 성공하게 되었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바이오플렉스 창업보육센터 개소 멤버인 (주)디자인농부는 금년 4월 30일 졸업을 하여 전주시 덕진구에 신축한 공장에서도 본격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계속적으로 진흥원과 연계하여 제품개발, 판로개척을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오플렉스 창업보육센터(전경)

(주)디자인농부, 입주기업의 성장 가능성 널리 알려



(주)디자인농부

<http://www.designnongboo.com>

대표 : 김요섭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강길 1-130

전화 : 063)542-5328



농업회사법인 (주)디자인농부는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바이오플렉스 창업보육센터'의 2호 입주기업으로 2014년 10월에 입주한 뒤 약 5년간 다양한 국내외 판로개척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매출성장과 지역 고용 창출로 전라북도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해왔다.

주요 품목은 곡물 소포장, 잡곡 선물세트, 곡물을 활용한 가공품, 협약농장 제품, 기업맞춤형 상품 등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 유통, 홍보, 마케팅, 판매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며 소비자와의 직접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디자인농부"는 지역 생산농가들과 협업농장을 운영하며, 직접 종자를 주고 재배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수확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농가들과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들은 판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 고품질 생산에 주력할 수 있고, "디자인농부"는 좋은 농산물을 공급받는 시스템으로 지역 농가들과 상생협업을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이다.

(주)디자인농부는 국내산 농산물을 소포장, 가공을 통해 국내 우수기업체 및 소비자와 직거래를 함으로써 농업 부가가치 창출 및 국내산 농산물 소비에 앞장서고 있다. 신뢰란, 보이는 곳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크다고 생각한다는 "디자인농부"는 "정직함이 아니면 담지 않겠다"는 모토를 바탕으로 쾌속 성장하고 있다.

DESIGN
NONG
BOO





좌측부터 조영욱(정책기획팀), 안세영(인력양성팀), 이휘(기업지원팀)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새얼굴 만나기!

조영욱 정책기획팀

즐겁고 보람차게
일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업무를 처리하면서 저의 역량이 하나씩 쌓여간다는 느낌이 들 때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업무 프로세스나 일하는 방식이 어색했던 초기에 비하면 이제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을 배워갈수록 팀간, 업무 간 유기적 관례를 이해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보람이자 큰 즐거움입니다. 앞으로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서 조금씩 더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세영 인력양성팀

일자리 소통의
창구가 되겠습니다

농생명·식품 산업에 특화된 예비 취업자들을 교육하고 고용연계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요즘 교육생분들이 열정적으로 교육에 임하는 모습을 보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린 자세와 경청을 통해 식품산업의 예비 취업자들의 니즈를 먼저 파악하여 인력 mismatches를 해소하고 도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성장하는 저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이휘 기업지원팀

기업성장의
튼튼한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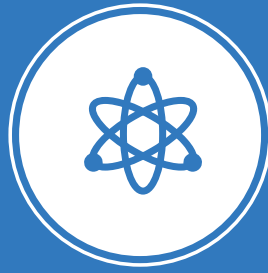
농식품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 애로해소 및 유망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북 도내 식품, 농생명 자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우리 진흥원에서 앞으로도 우리 도내 농식품기업의 지원 및 성장을 통한 지역산업,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성장의 파트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2019년도 식품분석지원 안내



연구용역

- 식품의 유통기한설정 시험
- 품목 제조 보고 및 변경용 시험분석 자료
- 제품의 품질 평가 및 기능성 평가
- 이화학, 미생물학 및 관능적 분석



식품 분석 지원

- 자가품질검사 및 영양성분검사 등 식품 시험 검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식품 시험·검사기관(제33호)
- 식품위생검사
- HACCP 지정 및 유지(미생물 검사), 공정 및 제품 관리 등



기타 지원(자문/컨설팅 등)

- 식품의 유통기한설정 시험
- 품목 제조 보고 및 변경용 시험분석 자료
- 제품의 품질 평가 및 기능성 평가
- 이화학, 미생물학 및 관능적 분석

식품분석 수수료

■ 미생물학적검사 항목별 | 수수료

대장균군 검사(유당배지)	23,000	항색포도상구균(정성)	33,000	장출혈성대장균	98,000
대장균군검사(건조필름)	37,000	항색포도상구균(정량)	33,000	장출혈성대장균(n=5)	134,000
대장균검사	25,000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31,000	살모넬라(n=5)	71,000
유산균수검사	19,000	여시니아 엔테로코리티카	39,000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정성시험, n=5)	99,000
일반세균수검사	17,000	바실러스 세레우스(정성)	35,000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정량시험, n=5)	246,000
진균수검사	20,000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35,000	항색포도상구균(정성시험, n=5)	53,000
바실러스세레우스(정량시험)	111,000	세균발육 시험	19,000	항색포도상구균(정량시험, n=5)	123,000
장염비브리오	26,000	세균수(n=5)	57,000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n=5)	68,000
대장균O157:H7	27,000	대장균군검사(정량시험, n=5)	52,000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	58,000
살모넬라 검사	23,000	대장균검사(정량시험, n=5)	60,000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정량검사	80,000	바실러스세레우스(정량시험, n=5)	294,000		

■ 식품검사 항목별 | 수수료

미량영양성분시험(비타민A)	112,000	아질산이온	18,000	마그네슘	64,000
미량영양성분시험(칼슘)	55,000	인삼(홍삼)성분확인시험	45,000	구리	53,000
미량영양성분시험(인)	55,000	전화당	44,000	조단백질	29,000
미량영양성분시험(철)	53,000	과당	39,000	납(유해성)	82,000
미량영양성분시험(나트륨)	54,000	조지방	30,000	이물	29,000
미량영양성분시험(아연)	53,000	산도	10,000	불용분	11,000
미량영양성분시험(비타민C)	64,000	PH시험	9,000	타르색소	41,000
유해성금속시험(주석)	85,000	산화방지제	66,000	벤조피렌	104,000
농산물 및 어류 중 중금속시험법(카드뮴)	88,000	보존료시험법	52,000	총산	11,000
유해성금속시험(비소)	94,000	인공감미료(정성정량시험)	32,000	비누화가	12,000
유해성금속시험(수은)	78,000	붕해시험	10,000	비비누화물	15,000
총산	11,000	자당	42,000	조섬유	32,000
총염소	11,000	회분	15,000	총질소	32,000
요오드가	13,000	식염	14,000	순도시험(가)정성반응(비중)	7,000
산가	16,000	리놀렌산	53,000	수분시험(건조감량)	10,000
과산화물가	15,000	에루산산	53,000	9대영양성분	350,000

※ 검사항목의 VAT는 별도이며, 자가품질검사와 참고용 검사의 검사비용은 동일함

문의처 (재)전북생물산업진흥원 상품화지원팀 한금철 연구원 063-210-6537

I 진흥원 안내도



1. 본관(첨단바이오·식품센터)

-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본관
- 벤처기업 입주기업 제공
- 연구개발 공간

2. 연구개발센터

- 연구개발 및 품질검사
- 영양성분 등 특정검사

3. 바이오플렉스 창업보육센터

- 창업기업 입주

4. 비즈니스센터

- 도내 식품기업 제품전시
- 바이어 상담실 / 회의장

5.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

- GMP 건강기능식품 생산시설
- 기술력 위주의 유망기업 입주

I 찾아오시는 길



I 담당자 안내

정책네트워크 지원 김초민 대리 Tel. 063-210-6523 E-mail. chomini@jif.re.kr	마케팅 지원 홍성무 과장 Tel. 063-210-6573 E-mail. h0406sm@jif.re.kr	입주/창업/인력양성 지원 채윤주 과장 Tel. 063-210-6574 E-mail. cpcup@jif.re.kr
시설사용 지원 조용석 연구원 Tel. 063-210-6514 E-mail. cys678@jif.re.kr	생산 지원 이정욱 주임연구원 Tel. 063-210-6551 E-mail. wook9699@jif.re.kr	분석 지원 한금철 연구원 Tel. 063-210-6537 E-mail. hahans@jif.re.kr
R&D 지원 서향임 선임연구원 Tel. 063-210-6532 E-mail. hiseo@jif.re.kr	발효식품엑스포 지원 이기준 과장 Tel. 063-210-6592 E-mail. kj@jif.re.kr www.iffex.or.kr	기술사업화 지원 박주용 주임연구원 Tel. 063-210-6544 E-mail. jypark@jif.re.kr